



HM Treasury

2020 영국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 공공부문 우발부채 관리

2021. 12.



HM Treasury

2020 영국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 공공부문 우발부채 관리

2021. 12.

| 연구진 |

연구책임: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장
한소영 국가회계팀장
연구진: 장윤지 특수전문직 4급
최은혜 연구원

Government as insurer of last resort: managing contingent liabilities in the public sector

© Crown copyright 2020

본 출판물은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개방형 정부 라이선스 v3.0의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이 라이선스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nationalarchives.gov.uk/doc/open-government-licence/version/3/

본 출판물에서 타사 저작권 정보를 명시한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출판물은 다음 링크에 있습니다. www.gov.uk/official-documents

출판물에 대한 질문은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public.enquiries@hmtreasury.gov.uk

ISBN 978-1-913635-10-7

PU2950

〈요 약〉

영국 정부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때 국민을 보호하고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그 누구도 부담할 수 없는 위험을 부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홍수 위험, 중소기업 대상의 대출 지원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최후 보험자(insur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보험시장을 개선하며, 민간부문이 완전히 보장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정부가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의도치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개인의 경우 위험에서 보호되므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동기가 낮아질 수 있다(도덕적 해이). 또한, 정부가 위험을 담보하므로 민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위험을 부담할 때 당장은 확실하지 않으나 미래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출로 이어지는 부채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채를 우발부채라고 한다. 최근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비상시 경제 보호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도구로서 우발부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정부의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충격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보증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금융업계를 지원하는 수단이었다. 보증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시에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잘 관리되어야 하며,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를 위한 제안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다.

위험이 현실화되어 비용이 발생하면, 정부의 필수 서비스나 지원을 위한 지출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부채를 잘 관리하는 것은 공공 재정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필수적이다. 2017년 영국 재무부(HMT)는 신규 우발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시작했고, 이후 발생한 우발부채는 약 1,500억파운드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국제협력과 재정상태표 분석(BSR: Balance Sheet Review)을 통해 영국 정부의 우발부채 관리가 더 나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 보고서는 우발부채 관리 개선의 원칙과 전략을 설정하기 위해 국제 모범사례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노출된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1. 위험을 수량화하고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정부의 전문성 향상
2. 납세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 개선
3.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 및 현실화될 경우의 발생할 비용 모두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설정
4. 위험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재무부(Exchequer), 부처, 민간부문 간 명확한 손실 분담

〈표 1.A〉는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제안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제안사항은 영국 및 해외의 다양한 우발부채 전문가와 논의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정부가 우발부채 관리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원칙이다. 향후 정부는 이 제안사항의 적용을 추진할 것이다.

〈표 1.A〉 제안사항의 개요

전문성 향상
제안 1: 보증과 보험의 가격 책정, 발급,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중앙기관 구축 위험의 수량화와 가격 책정에 필요한 전문성 집결
제안 2: 정부 보증료와 보험료에 대한 독립적 검증 도입-중앙기관 수행 보증 및 보험 관련 정확한 위험 산정과 적절한 요금 책정을 위해 중앙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검증
제안 3: 더욱 광범위한 재정위험 관리를 통해 우발부채 통합 정부의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제안 4: 우발부채 누적액(stock) 감독 개선 비수량화 우발부채 추정을 포함하여 기존 우발부채 누적액의 평가, 수량화, 가격 책정 수행
제안 5: 정부의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보고기능 개선 비수량화 우발부채 추정치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기적 보고
보상 개선
제안 6: 정부가 보험 보증을 제공할 때에 적절한 보상을 확보 정부는 보증과 보험에 수반되는 손실 충당을 위한 최소한의 수수료에 관한 국제 모범사례를 채택해야 함
위험감소 인센티브 설정
제안 7: 정부 부처가 유사한 위험 유형과 수준에 관련된 정책들에 편파적이지 않도록 예산 성과금 제도 개선 한 부처가 예상 손실 전부를 수혜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보증과 보험을 보조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보조금을 인식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
손실부담 명확화
제안 8: 재무부, 부처, 민간부문 간 손실 분담을 공식화하여 위험 분담 개선 정부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위험 분담 약정 및 위험 체계 수립

제안 9: 암묵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개선하고, 위험 관리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위험 관리 체계 구축

정부는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암묵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

제안 10: 해당되는 경우 기존 위험 관리 범위 확장

정부는 현 우발부채 누적액을 고려하고, 기존 분산제도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해야 함

출처: 재무부(HMT)

차례

제1장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 현황	1
제2장 우발부채 관리의 추가적 개선	11
제3장 제안 개요	23
부록 A_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	25
부록 B_대출과 보증의 상대 비용	29
부록 C_우발부채 관리의 국제 모범사례	32
부록 D_사례 연구: 영국 수출금융청(UK Export Finance)	35
부록 E_사례 연구: 영국 국제개발부(DFID)	37
부록 F_사례 연구: 인프라사업관리청(Infrastructure Projects Authority, “IPA”) - 영국 보증계획(UK Guarantees Scheme)	38
부록 G_사례 연구: 영국 비즈니스 은행(BBB) - 기업금융보증(EFG)	40
부록 H_사례 연구: 영국 국민건강보험(NHS) 분쟁처리부	41
부록 I_사례 연구: 연금보호기금(PPF)	42
부록 J_사례 연구: Pool Re (테러보험 전용 상호재보험사, Pool Reinsurance Company Limited)	43

표목차

〈표 3.A〉 제안사항의 개요	23
〈표 A.1〉 회계 처리 개요	25

그림목차

[그림 1.A] 우발부채 분류체계	3
[그림 1.B]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에 명시된 우발부채 누적액	5
[그림 1.C] 우발부채 승인체계	6
[그림 1.D] 2017~2019년 신규 우발부채	8
[그림 2.A] 영국 비즈니스 은행(BBB) 위험 분담 약정	18
[그림 A.1]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희박한 우발부채의 구분	27
[그림 B.1] 대출/보증의 상대 비용	30

제1장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 현황

- 1.1 영국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안정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 결과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위험을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과 비용은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적절히 보장받을 수 없고 정부가 부담해야 하므로 발생한다. 이를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the government’s role as insurer of last resort)’이라고 한다.
- 1.2 역사적으로 정부는 시민과 기업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데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전쟁의 위험에 대비한 국방과 기본적인 의료 및 복지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 그러던 중 19세기 말과 20세기에 걸친 민주주의의 확산과 복지 국가의 부상으로 인해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 시민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정부는 홍수 위험, 테러 보험, 여행자 보호 및 소기업 대출 지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최후 보험자 역할을 한다. 최후 보험자의 역할은 당장은 확실하지 않으나 미래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출로 이어지는 부채를 일으킨다. 이러한 부채를 ‘우발부채’라고 한다.
- 1.3 재무부(HMT)는 2017 가을예산(Autumn Budget 2017)에 재정상태표 분석(Balance Sheet Review)을 도입하여, 2조파운드 규모의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개선하고 4조 6천 억파운드에 달하는 부채 비용과 위험을 줄이고자 하였다.¹⁾ 이 분석작업 하에 수행된 활동은 정부의 우발부채 규모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본 보고서는 정부의 우발부채 관리 개선의 원칙과 전략을 제시한다. 이는 우발부채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 공공 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것이다. 또한 우발부채의 현황을 다루며 우발부채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국제 모범사례를 활용한다. 정부는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제안을 진행하고 개발할 것이다.
- 1.4 위험 관리를 잘하는 것은 공공 재정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은 민간부문이 감당할 수 없거나 감당하려 하지 않는 위험을 떠안고, 공공정책의 결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될 때 비용을 부담한다. 실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시장에서 돈을 빌리거나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부채는 정부에 재정 위험을 안겨 주기 때문에, 정부가 위험을 부담할 때 해당 위험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 2017~2018’, 재무부, 2018년 5월

정부는 왜 최후 보험자 역할을 하는가

- 1.5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는 (1) 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 (2) 시장이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상품 제공, (3) 분배 목표 달성 등이다.²⁾ 정부가 최후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동일한 이유이다.
- 1.6 왜곡을 일으킬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정부는 민간부문의 위험을 일부 감당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일례로 중소기업은 보다 안정되거나 규모가 큰 경쟁업체보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성장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시장의 경쟁력이 낮아진다. 이에 정부는 대출기관에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시장 실패(Box 2.A 및 부록 G 참조)를 바로잡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단, 의도하지 않은 시장 왜곡, 예를 들면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부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부담할 것을 알기 때문에 대출기관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대출을 제공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 1.7 정부의 개입 없이는 민간부문이 완전한 보험을 제공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실제 발생 시 영향이 큰 테러 공격과 같이 공격의 규모, 시기 및 장소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사는 해당 위험을 신뢰성 있게 모델링할 수 없다. 또한, 희박하기는 하나 공격의 규모가 매우 방대해 보험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며, 영향력이 크고 확률이 낮은 사건을 보장하는 보험시장이 부재할 수 있다.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재앙적 사건(부록 J 참조)의 꼬리 위험(tail-end risk)을 감당함으로써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보증한다.
- 1.8 이론적으로 민간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보장하는 위험이 있다. 여행사의 부도로 인해 해외에서 발이 묶인 여행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비록 해당 위험은 민간 여행자 보험으로 보장되나 정부가 위험을 부담한다. 정부는 영국 시민을 보호하고 모든 시민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공 여행자면허(ATOL) 제도를 도입했다.³⁾ 정부 정책과 사회 동향이 폭넓게 발전함에 따라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부담하는 위험이 변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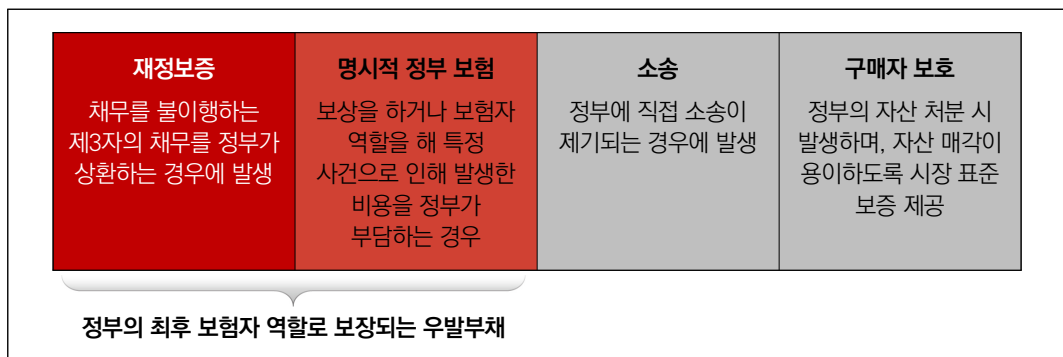
2) 'The Green Book', p 5, 재무부, 2013년 4월(2019년 3월 업데이트 포함)

3) 영국 항공 여행자면허(ATOL)는 본래 1973년에 영국 정부가 제정했으며, 현재는 여행사 파산 시 여행자를 완전히 보호하는 유럽 패키지여행 지침 2015(EU Package Travel Directive 2015)에 따라 영국이 해당 의무를 이행한다.

우발부채 유형

1.9 우발부채는 다양한 위험을 포괄한다. [그림 1.A]에 의하면 정부가 직면하는 우발부채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⁴⁾

[그림 1.A] 우발부채 분류체계



출처: 재무부(HMT)

1.10 재정보증(Financial Guarantees) - 제3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 상환하기로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채무, 또는 다른 유형의 금융 상품에 대한 보증 형태로 이루어진다. 영국 비즈니스 은행(BBB: British Business Bank)이 제공하는 기업금융 보증제도(EFG: Enterprise Finance Guarantee)(부록 G 참조)가 이러한 보증의 한 예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대출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정부가 보증을 제공한다.

1.11 명시적 정부 보험(Explicit government insurance) -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 보상을 하거나 보험자 역할을 함으로써 수반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병으로 인해 가축을 도축해야 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위험을 비롯하여 다양한 위험이 포함된다.

1.12 소송(Legal cases) - 정부가 특정 활동을 한 결과로 인해 정부에 직접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우발부채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정부를 상대로 잘못된 세액 징수를 주장하는 경우 발생한다.

4) 이러한 우발부채 범주는 위험 관리를 위해 설정되어 회계 범주와는 다르다. 이 범주의 우발부채는 발생 가능성이 희박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부록 A는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이 어떻게 회계 처리 되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 1.13 구매자 보호(purchaser protections) - 해당 유형의 우발부채는 정부 자산 처분 시 발생한다. 자산 매각 시, 매각이 용이하도록 특정한 시장 표준 보증(market-standards warranties)이 제공된다. 이 보증에는 정부가 매각하려는 자산이 정부 소유의 자산이고, 정보가 정확하며, 자산에 관련된 법적 채무를 정부가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보증은 매각 자산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제공되며, 자산에 따라 보상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 1.14 처음 두 범주에 속하는 재정보증과 명시적 정부 보험과 관련한 우발부채는 정부의 최후 보험자 기능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부가 시장 실패를 시정하고자 개입한 결과로 발생한다. 다른 두 범주에 속하는 우발부채는 정부의 최후 보험자 기능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을 징수하고, 자산 매각 전 실사를 하는 등 정부가 해당 위험을 직접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발부채는 민간의 일반적인 사업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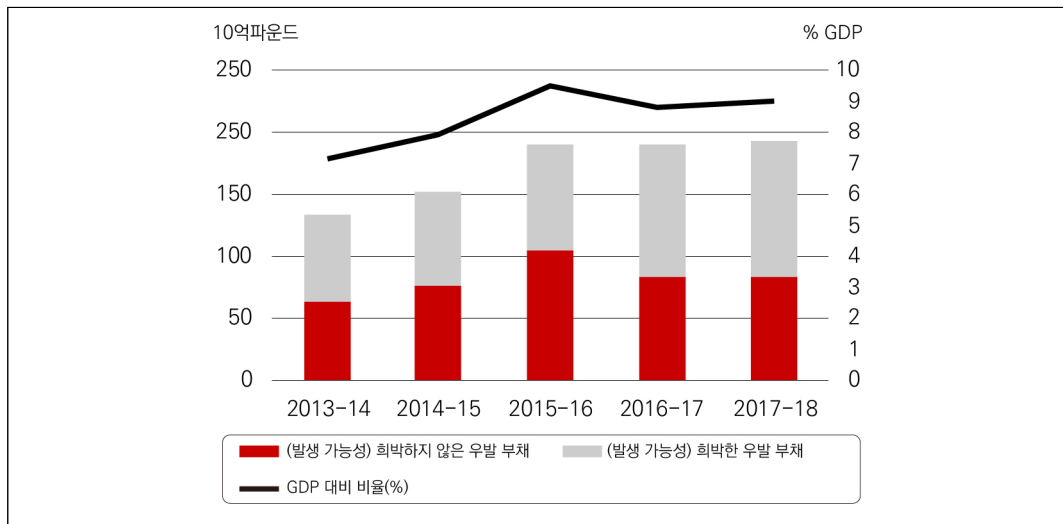
민간부문의 위험 부담

- 1.15 최후 보험자 역할이 사회와 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반면, 민간부문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 역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보증과 보험 발행이 공공부문순채무(PSND)나 공공부문순차입(PSNB)에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해당 보증이 실행되는 미래에는 재정적 충격을 줄 수 있다. 부록 B는 보증과 대출의 상대 비용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 재정 또는 예산의 제약 때문에 보증을 이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1.16 최후 보험자 역할로 인해 도덕적 해이도 일어날 수 있다. 민간부문이 위험의 후속 결과에서 보호되므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져 납세자의 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민간 보험에서 이용하는 위험 기반 보험료나 자부담 등을 활용하여 수혜자가 각자의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줄이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규 우발부채 생성에 대한 관리 개선

- 1.17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는 수량화된(quantifiable) 우발부채 누적액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이 누적액은 2017년과 2018년 동안 약 1,930억파운드([그림 1.B] 참조)에 달했다.⁵⁾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우발부채는 각 약정이 납세자에게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 1.18 정부 기관은 민간부문에 요구되는 회계기준을 넘어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remoted) 우발부채를 별도의 범주로 포함한다. 이로써 대중은 가능성은 낮으나 영향력이 큰 시나리오를 인식할 수 있다. 정부 부처별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의 특성을 설명하며 가능한 경우 추정된 재무적 영향력을 제시한다. 따라서 부처에서 수량화된 희박한 우발부채만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에 포함되고 수량화되지 않은 우발부채는 회계 설명자료에 리스트로 나열된다. 우발부채와 다른 불확실한 미래 의무에 관한 회계처리는 부록 A에서 다루고 있다.

[그림 1.B]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에 명시된 우발부채 누적액



출처: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

5)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 2017~2018', 재무부, 2018년 5월

1.19 2013년 이래 증가한 우발부채에 대응하여 재무부(HMT)는 2017년에 새로운 우발부채 승인체계를 도입했다.⁶⁾ 본 체계는 신규이거나, 논란이 많거나,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는 3백만파운드 이상의 새로운 우발부채의 경우 5가지 기준([그림 1.C] 참조)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그림 1.C] 우발부채 승인체계

1. 논거	a) 해결할 문제가 무엇이며 정부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b) 시장 실패 시 우발부채 발행이나 변경이 왜 필요한가? 왜 이것이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나은가? c) 어떤 대안책이 검토되었는가? (예. 보조금)
2. 노출액	a) (정해진 경우) 우발부채의 최대 규모는? b) 해당 규모의 근거는? c) 우발부채(정해진 경우)는 언제 만료되는가? d) 이러한 만기가 왜 필요한가? e) 탈출전략이 존재하는가?
3. 위험과 수익률	a) 무엇이 우발부채를 현실화하는가? b) 완전히 현실화되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현실화되는 기간은 얼마인가? c) 우발부채와 관련된 예상 손실은 얼마인가? d) 우발부채의 수명기간에 걸쳐 분배될 수 있는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 e) 우발부채의 수익 대비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4. 위험 관리와 완화	a) 우발부채 관련 위험은 누가 관리하며 위험 관리에 어떤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이용하는가? b) 어떤 위험 완화 도구를 고려하였는가? (예. 부분적 보증, 담보, 위험 감수 행위에 대한 통제, 재보험 등) c) 재무부는 우발부채 관련 위험 부담을 적절히 보상받는가? (예. 보증료, 조건부 청구, 이익 분배 등) d) 재무부는 어떻게 잔여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가? (예. 비상자금, 금융자산 확보, 헤징 등)
5. 재정여력	a) 우발부채가 현실화할 경우 부처 예산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련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가? b) 부처의 가용자원 대비 우발부채의 예상 손실 비율은 얼마인가? c) 우발부채가 현실화할 경우 공공부문순부채(PSNL)와 공공부문순채무(PDSND)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출처: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

1.20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본 승인체계를 정부 보증 관리에

6) ‘우발부채 승인체계: 지침’, 재무부, 2017년 7월

대한 국제 모범사례라고 언급한 바 있다.⁷⁾ 2017년 도입된 이래 해당 승인체제로 약 1,500억파운드 규모의 100개 이상의 신규 우발부채를 평가했다. 본 체계는 신규 우발부채를 승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대다수의 신규 우발부채는 아래의 절차를 거친 후 승인되었다.

- 위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 또는 개선된 수량화 정보가 제출됨
- 위험을 줄이거나 위험을 부담하는 납세자에 대한 보상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정책 변경이 이루어짐

또한, 총 96억파운드 이상의 우발부채가 완전히 반려되어 위험 경감을 도왔다.

- 1.21 승인체제를 통과한 우발부채 정보는 재무부(HMT)의 우발부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며 예산책임청(OBR)이 발행하는 경제·재정전망보고서(EFO)에서 보고된다. 이를 통해 정부 전반에 걸쳐 생성된 신규 우발부채의 구성내역이 일차적으로 공개된다. 데이터베이스는 승인된 신규 우발부채만 포함하므로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상의 기존 우발부채 누적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 1.22 우발부채 데이터베이스는 정부가 직면할 최대 잠재 노출(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공공부문이 부담할 의무)을 추적할 수 있게 하므로 위험 관리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접근법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발부채를 수량화하는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 방식과 상이하다. 즉 우발부채 데이터베이스는 우발부채 약정으로 인해 정부가 부담할 최대 추정액을 제시한다. IMF는 최대 노출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장하는데, 최대 노출은 예상 지급액보다 모니터링과 적용이 용이하고 한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⁸⁾
- 1.23 정부는 추정액을 활용하여 우발부채를 유발하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정부보험계리부(GAD)는 재무부(HMT)를 대신하여 Pool Re 재보험사에 정부가 제공한 약정(부록 J 참조)에 내재된 위험을 수량화했다. 이 작업은 약정에 내재한 최대 잠재부채를 식별하지는 못하였으나 재무부(HMT)가 해당 위험에 적절한 보증료를 청구하

7) '정부보증 관리 강화방안', IMF, 2017년 10월, '제18차 OECD 발생주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OECD 파리, 2018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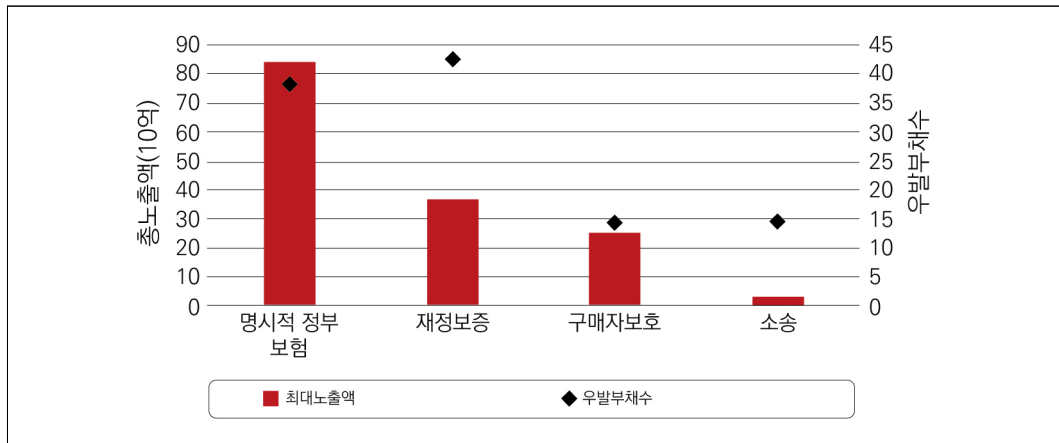
8) '정부보증 관리 강화방안', IMF, 2017년 10월

도록 지원할 수 있었다.

1.24 [그림 1.D]는 승인체계를 거친 우발부채 범주별 총 노출액과 우발부채의 수를 보여준다.

최대 위험 원인은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이며 그 뒤를 재정보증이 따르고 있다.

[그림 1.D] 2017~2019년 신규 우발부채



출처: 재무부(HMT) 우발부채 데이터베이스

1.25 본 보고서는 정부가 사건 발생 시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우발부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암묵적 우발부채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ox 1.A 참조).

Box 1.A: 암묵적 우발부채(Implicit Contingent Liabilities)

암묵적 우발부채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공식적인 법적 의무가 없으나, 위험이 대중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민간부문이 부담하지 않는 위험을 지칭한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비용 부담의 책임을 떠안는다. 이러한 위험은 부처 재무제표나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에 우발부채로 기록되지 않는다. 명시적 약정이 없으므로 정부는 미래에 위험이 현실화될 때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암묵적 부채를 제거할 수 있다.

정부가 암묵적 위험에 대해 기록하지 않으므로 부담하게 될 암묵적 우발부채의 범위를 수량화하는 것은 명시적 정부 보험에 비해 더 어렵다. 그러므로 암묵적 우발부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어렵다. 잠재적 부채가 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에 직면한다. 이러한 부채가 암묵적이기 때문에 위험에 관하여

수집되는 데이터는 다른 우발부채의 데이터에 비해 극히 적다. 예산책임청(OBR)은 암묵적 우발부채를 식별하고 재정위험보고서에 보고한 바 있다.⁹⁾

암묵적 정부 보험의 도덕적 해이는 관리하기 더 어렵다. 암묵적 부채를 명시적으로 전환하면 수혜자는 정부가 비용을 부담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는 수혜자가 이미 정부의 비용 부담을 예상하는 경우에도 도덕적 해이는 이미 존재할 수 있다. 이렇듯 정부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수혜자가 민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결과(‘무임승차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부채를 명시화하여 수혜자가 위험을 줄이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민간부문에 위험을 전부 부담하게 함으로써 암묵적 부채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OECD는 정부가 암묵적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선언을 사전에 하지 않는 이상 암묵적 채무를 명시적 채무로 전환할 것을 권장한다.¹⁰⁾

우발부채 누적액 관리 개선

1.26 새로운 체계는 신규 우발부채의 흐름에 따른 위험 조사, 이해 및 모니터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본 보고서는 정부가 우발부채 생성 후 이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 우발부채 누적액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어떤 계획을 하는지 기술하고 있다.

1.27 예산책임청(OBR)의 2019 재정위험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승인체계가 발효되기 전 얼마나 많은 우발부채가 현실화되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재무부에 물었다. 그러나 재무부는 온전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일정 기간 정부가 직면하는 재정적 위험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규 우발부채의 흐름이 아니라 총 우발부채 누적액이므로 이러한 정보 격차는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¹¹⁾

9) ‘재정위험보고서’, 예산책임청(OBR), 2017년과 2019년

10) ‘우발부채를 위한 예산 편성’, OECD, 2013년 6월

11) ‘2019 재정위험보고서’, OBR, 2019년 7월

제2장 우발부채 관리의 추가적 개선

2.1 전 세계적으로 우발부채는 상당한 재정적 위험을 시사한다. 2016년 IMF 재정국(fiscal affairs department)에서 주도한 연구에 의하면 1990년과 2014년 사이에 현실화된 우발부채의 세계 평균 재정비용은 GDP의 약 6%에 달했다.¹⁾ IMF와 OECD는 우발부채 관리에 다음의 모범사례를 권고한다.²⁾

- 비용과 위험은 우발부채 발행 전에 분석하고, 누적액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공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전문성 개발
- 최소한, 예상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위험 기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험 감수에 대한 보상 확보
- 우발부채 발행 시 잠재적 비용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보증, 대출 및 보조금 간의 중립성을 장려하는 우수한 인센티브 설정
- 위험 완화를 위한 위험 분담, 미래 손실 보전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출액과 명목 자금(추적 가능한 자금으로 재무부에 반환되는 자금, Box 2.B 참조)에 한도를 설정하는 위험 체계

우발부채 관리에 관한 국제 모범사례는 부록 C를 참조한다.

2.2 우발부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 위험 부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위험을 잘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그리고 위험 소유권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재무부(HMT)의 재정상태표 분석팀은 각 권고사항에서 추가적 개선 기회를 식별하였고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본 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소개한다. 이러한 제안은 우발부채 관리 개선의 토대를 제공하지만 각각의 우발부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황을 반영하는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 일례로 조달 계약으로 우발부채가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 '정부보증 관리 강화방안', IMF, 2017년 10월

2) '우발부채를 위한 예산 편성', OECD, 2013년 6월, '우발부채 관리에서 공공채무 관리자의 역할', OECD, 2017년 2월

전문성

- 2.3 보증이나 보험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이해, 관리 및 평가하고 보증료나 보험료를 적절히 책정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해당 전문성에는 신용위험 분석(재정보증 관련), 보험 통계분석(보험 위험 관련), 상업 및 법률 지식이 포함되며 영국에는 이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부문 조직이 존재한다(이들 중 다수가 부록 D~J에서 소개됨).
- 2.4 이러한 전문성은 정부의 우발부채로 인해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위험과 비용을 줄이고 더불어 정부 보증과 보험이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경제적 혜택을 의도한 대로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개선의 기회

- 2.5 위험의 규모와 분포에 대한 정보 개선 특정 우발부채에 대한 위험 규모와 분포를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종종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과거 사건이 부족하고 사실과 반대되는 사건을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17년 이전에 발행한 우발부채 관련 지급액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필요한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사건이 드물게 또는 무작위로 발생하여 위험을 평가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서 위험을 평가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나 모든 부처가 관련 전문성에 접근하지는 못한다.
- 2.6 위험에 대한 모델링, 모니터링, 관리 전문성 개선 우발부채 수량화나 관리 또는 보증료와 보험료 책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부처 내에 두루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현상은 관리할 우발부채가 많지 않거나 관리 방법에 관한 요건이 거의 없는 것에 기인할 수 있다. 보증과 보험을 발행하는 특정 부처 내에 신용 분석, 상업 및 법무와 같은 특정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해도 이를 타 부처에 쉽게 제공하기 어렵다. 다른 분야의 전문성은 한시적으로 제공되기도 하는데, 수량화나 수수료 책정을 위해 정부보험계리부(GAD)와 같은 보험 계리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Rool Re 재보험사가 재무부(HMT)에 지급할 수수료 협상을 위해 재무부(HMT)가 컨설팅을 받은 바 있음. 부록 J 참조). 그러나 부처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잘 알지 못하며 현재, 그러한 전문지식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 2.7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정부의 우발부채 관리 정부는 개별적으로 위험이 낮고 관리가 용이

해 보이는 여러 개의 보증을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산업 내 경기 침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증이 일시에 촉발되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유발 요인들 간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의 하락(주택 관련 보증 개시)은 경기 침체(중소기업 지원용 보증 개시)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 상이한 부처가 보증을 발행한 경우 이를 식별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현재 정부는 공통 촉발점(common trigger)과 체계적 위험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우발부채 포트폴리오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여러 우발부채를 동시에 현실화하는 외부 사건의 파급력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 2.8 민간부문의 위험을 관리하는 기관의 역량 제고 위험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은 정부 및 공공부문별로 상이하다. 정부가 민간부문의 위험에 점점 더 노출됨에 따라 정부는 위험을 관리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제안

- **제안 1:** 보증과 보험의 가격 책정,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중앙기관 구축

2.9 상기 식별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발부채를 관리할 중앙기관(a central capability)을 구축해야 한다. 중앙기관은 위험의 평가, 수량화, 가격 책정에 있어서 타 부처를 지원할 수 있다. 부처마다 자체적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것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정부 전반에 걸쳐 보증이나 보험을 발행할 때 일관된 접근 방식과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출은 재정보증과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므로 중앙기관의 전문성은 대출이나 여타 금융 거래에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는 부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제안 2:** 정부 보증료와 보험료에 대한 독립적 검증 도입

2.10 보증과 보험의 가액은 중앙기관이 독립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정확히 산정될 수 있으며 위험 부담의 대가를 적절히 책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독립적으로 수량화할 때 각 부처는 상이한 모델이나 가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정의 복잡성과 위험에 내재된 불확실성은 방법론이나 가정이 조금만 변경되어도 예상 손실이나 수수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이를 더

광범위한 재정위험 모델링과 통합함에(제안 3 참조) 있어서 모델링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독립적 검증은 정부 전체에 일관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증이나 보험으로 인한 위험이 둘 이상의 부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

□ **제안 3:** 더욱 광범위한 재정위험 관리를 통해 우발부채 통합(포트폴리오 구성 등)

- 2.11 위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초기 발행 및 채무 기간에 걸쳐 우발부채를 분석해야 한다. 정부는 근본적 위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우발부채를 적극 관리해야 한다.
- 2.12 또한 이를 위해 중앙기관은 정부의 우발부채 포트폴리오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이로써 포트폴리오 내에 존재하는 상이한 우발부채, 편중 위험, 체계적 위험 간의 연관성을 식별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경제 충격의 영향력에 대한 정부의 이해와 완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우발부채 위험과 노출 분석은 기존의 재정위험 관리 프로세스와도 통합되어야 한다.

□ **제안 4:** 우발부채 누적액 감독 개선

- 2.13 우발부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려면 정부는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우발부채를 이해해야 한다. 2017년 이전에 생성된 우발부채에 대한 포괄적이고 세분화된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이 기능을 수행하려면 중앙기관은 기존의 우발부채 누적액을 평가하고, 수량화하고, 가격 책정을 해야 한다. 오래된 우발부채의 경우 관련성이 유지되는지, 목적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제안 5:** 정부의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보고기능 개선(정기보고 등)

- 2.14 정부의 우발부채 포트폴리오는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이 보고는 수량화되지 않은 우발부채 추정치 대비 포트폴리오의 실적(손실액, 수익, 회수액 포함)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재무보고를 보완한다. 우발부채의 투명성과 가용 데이터가 개선되어 더 나은 정책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영국 보증계획(UKGS)에 관해 인프라사업관리청(IPA)이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부록 F 참조).

보상

- 2.15 일부 공공부문 기관이 보증이나 보험에 대해 상업적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이것이 정부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재정상태표 분석(BSR)을 통해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과소 보상을 받는 몇 가지 영역을 식별했다.

개선의 기회

- 2.16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의 비용 충당 및 위험 감소를 위한 인센티브 설정용 위험 기반 수수료 청구 및 담보 설정 예상 위험을 반영한 수수료를 수혜자에게 부과하면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도가 변경되면서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어 수혜자는 부과된 수수료를 줄이려고 위험을 관리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험 기반 수수료를 적용해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으며, 정부 보증/보험 수혜자가 위험 감소 행동을 하도록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우발부채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고 보증/보험에 대한 수요를 절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위험을 줄여준다. 효과적으로 가격 책정된 위험은 또한 위험을 감수하는 납세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 2.17 그러나 정책적이고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이미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처도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지출에 대한 입법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공약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제안

- **제안 6:** 정부가 보험보증을 제공할 때 적절한 보상 확보(손실충당 수수료)

- 2.18 정부는 보증/보험을 요하는 민간부문의 예상 손실과 관리비를 충당하도록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권장하는 OECD와 IMF의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수혜자에게 전액을 전가하지 않은 채 정부가 보증/보험을 보조하기로 정한 정책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시가보다 낮게 판매될 수 있는 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고자 정부가 주택 보증 수수료를 보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 2.19 결과적으로 부처는 보증/보험 보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보조금(즉 수수료 수입과 예상 원가의 차액)을 인식해야 하며, 그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산을 책정할 경우 실제적 위험 감수 비용을 반영할 수 있으며,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비용을 충당하는 데 부처는 더 나은 재정적 위치를 차지한다.
- 2.20 수수료의 적절성을 모니터링하지 않아 정부가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을 부족하게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일례로, 정부보험계리부(GAD)가 Pool Re 재보험사(부록 J 참조)에 제공한 보증을 평가한 후 해당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이로써 정부는 적절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재협상할 수 있었다.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수량화와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정부는 보증의 대가를 적절히 취득할 수 있다.

인센티브

- 2.21 일반적으로 우발부채는 해당 위험이 현실화되어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처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산에 우발부채 관련 예상 손실을 인식하면 관련 부처가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개선의 기회

- 2.22 **우발부채 비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정부의 우발부채는 재정상태표에 인식되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중대한 위험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우발부채 발행 시 재정지표나 부처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재정 및 지출 통제체계에서 관리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새 승인체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우발부채 비용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불충분했으며, 그 결과 위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제안

- **제안 7:** 정부 부처가 유사한 위험 유형과 수준에 관련된 정책들에 편파적이지 않도록 예산 성과금(budgetary incentives) 제도 개선(예산체계에 우발부채 예상 원가를 반영)
- 2.23 예산체계에 이 비용을 인식하여 우발부채의 예상 원가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면 공공부문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부처가 이러한 비용을 더 잘 인식함으로써 보증/보험 보조 여부를 더 잘 판단할 수 있게 되며 한정된 자원으로 사회경제적 이익을 극

대화하기 위해 그 비용을 어떻게 다른 지출과 대체시킬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 2.24 OECD와 IMF의 권고에 발맞추어, 이는 유사 비용과 보증, 대출 및 보조금 간의 중립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재무부(HMT)는 연결예산지침(Consolidated Budgeting Guidance)에 우발부채를 위한 예산 편성을 검토할 예정이다.³⁾ 보증과 보험에 관련된 예산처리 변경사항은 부처와 재무부 간의 위험 분담 조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위험 소유권

- 2.25 재무부, 부처 및 민간부문 간의 명확한 위험분 담은 명확성을 제공하며,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몇몇 영역에는 이러한 명확성이 존재(Box 2.A 참조)하지만 정부 전체에 널리 퍼져 있지는 않다.

Box 2.A: 영국 비즈니스 은행(BBB)의 ENABLE 보증제도

재무부, 부처 및 민간부문 간 위험을 분담하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고 정부의 노출을 감축하며 손실 범위에 대한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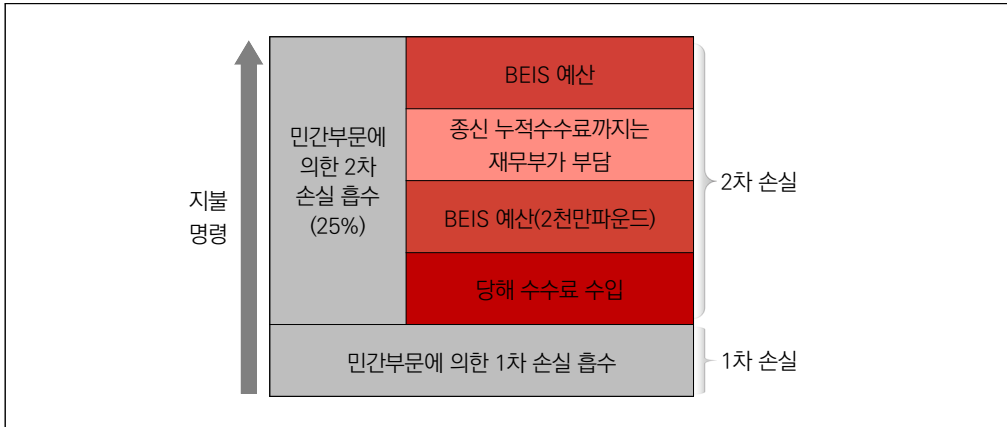
2014년에 설립된 영국 비즈니스 은행(BBB)은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능력을 제고하고자 고안된 다수의 보증제도를 운영한다. 그중 가장 큰 규모는 기업금융보증(EFG, 부록 G 참조)과 ENABLE 보증제도이다.

ENABLE 보증제도의 총 한도는 20억파운드이며 그중 12억파운드를 지출했다.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자본금 액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출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계획한다. ENABLE 보증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출 포트폴리오 가치의 75%를 보증한다.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 역시 보증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첫 5%를 흡수하며 위험에 기반한 수수료를 보증에 대한 대가로 정부에 지불한다. 보증 수수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적되며 재무부에 반환된다.

영국 비즈니스 은행(BBB)은 후원부처인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그리고 재무부와 위험분담 약정을 체결했다. dl 약정 하에, 보증 손실이 발생하면 그 해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서 영국 비즈니스 은행(BBB)이 먼저 충당하고, 수수료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손실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가 당해 예산에서 2천만파운드까지 충당한다. 2천만파운드 이상의 손실은 종신 누적보증수수료 한도 내에서 재무부가 충당하며, 그 이상의 손실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가 흡수한다.

3) '연결예산지침 2019~2020', 재무부, 2019년 3월

[그림 2.A] 영국 비즈니스 은행(BBB) 위험 부담 약정



출처: 영국 비즈니스 은행(BBB)

2.26 우발부채로 인해 누적된 수수료와 보험료 수입은 미래에 현실화되는 위험 비용을 충당하는 완충재 역할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계정은 특정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는 기금인 ‘감채기금(sinking fund)’을 선호한다.

Box 2.B: 감채기금(sinking fund)

연금보호기금(PPF, [부록 I 참조](#))과 같은 감채기금을 정부가 적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처가 ‘감채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지출 압력에 대응하며 차입을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더욱이 다수의 개별 감채기금은 노출된 총 위험을 관리하고 포트폴리오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재무부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채기금은 아래와 같이 명시한 ‘예산집행기준(Managing Public Money)’의 원칙과도 충돌한다. “중앙정부 부처는 필히 시중 은행 잔고를 최소로 유지해야 한다. 각 부처가 시중 은행계좌에 상당한 잔고를 유지한다면 어느 정해진 날에 정부의 순 차입금이 상당히 높아져 이자비용이 추가되며 재정균형이 저하될 것이다.”⁴⁾

감채기금보다 명목계정(즉 추적 가능한 자금으로써 재무부에 반환되는 자금)을 선호한다. OECD와 IMF는 감채기금보다는 명목기금을 권장하는데 명목기금은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관리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⁵⁾

4) ‘예산집행기준’, p.38, 재무부, 2013년 7월(2019년 10월 업데이트)

5) ‘우발부채를 위한 예산 편성’, OECD, 2013년 6월

하지만 연금보호기금(PPF)과 같이 영국 공공부문에서 감채기금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있으며, 반면에 이러한 적절성이 특정 상황에서는 제한적일 수도 있다. 감채기금을 설정하려면 우선적으로 위험을 완전히 보장하고 중앙정부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이후 수수료를 높이거나 지불액을 줄임으로써 민간부문과 위험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27 정부가 최후 보험자의 역할을 할 때, 민간보험의 위험 관리 역할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보험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추면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상당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 실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가능한 한 민간부문 시장을 약화하기보다는 지원하는 방안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개선의 기회

2.28 정부의 노출 범위나 한계에 대한 명확성 제고 명확성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우발부채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 재정보증 - 재정보증에 관련된 정부의 노출은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즉 정부가 보증하기로 약정한 채무액으로 노출을 제한한다.
- 명시적 정부 보험 - 이러한 유형의 채무에 대해 정부는 미래의 비용 발생 가능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최악의 시나리오 발생 시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채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은 정부에게 큰 효익을 준다(정부보험계리부(GAD)의 Pool Re 재보험사 사례. 부록 J 참조).

2.29 재무부(HMT) 승인체계가 실행되면서 신규 우발부채에 대한 노출 범위를 추적하는 정부의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실행 이전에 발생했던 우발부채에 대한 노출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정부가 총 노출 범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적절한 완화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30 전 분야에 걸친 최대한의 위험분산 최후 보험자로서의 정부 역할은 상이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포트폴리오에 적용된다. 한 분야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을 분산할 경우 개별적 우발부채에 미치는 손실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일례로, 연금보호기금(PPF)은 모든 연금제도의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개별 연금제도의 실패로 인한 영향력이 감소한다(부록 I 참조). 개별적으로 기업에 보험을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문 전반에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위험 관리가 용이해지며 위

험이 현실화될 경우의 비용과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다. 상이한 특성을 가진 다수의 위험을 성공적으로 분산시킬 경우 정부는 우발부채 포트폴리오 내에서 현실화된 위험이나 충격에 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 2.31 **충격에 대비한 완충재 구축 능력 제고** 보증/보험 제공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수수료/보험료를 부과하면 정부는 위험의 현실화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할 때 보다 나은 재정적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부처가 보증/보험 수수료를 청구하여도 해당 수수료가 재무부에 반환되는 시점까지 수수료 수입을 보유할 수 없다. 이는 우발부채가 현실화될 경우 완충장치가 없어 해당 포트폴리오 내 충격에 그대로 노출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해도 장점이 거의 없어 보증/보험 수수료를 청구할 인센티브가 없는 셈이다.

제안

- **제안 8:** 재무부(HMT), 부처 및 민간부문 간 손실 분담을 공식화하여 위험 분담 개선

- 2.32 Box 2.A에 제시된 대로 수혜자가 가장 먼저 손실을 부담하도록 보증과 보험의 구조를 정부 전체에 걸쳐 표준화시켜야 한다. 가능하다면, 정부 보증과 보험을 제공할 때 납세자와 민간부문 간에 2차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부분적 보증이나 공동 지급조치도 좀 더 일관성 있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로써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여 납세자가 손실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고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의 정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2.33 정부는 부처에 더 높은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전체에 걸쳐 영국 비즈니스 은행(BBB) ENABLE 보증제도(Box 2.A 참조)에 사용된 것과 같은 위험 분담 협약의 체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로써 부처는 정부 전체에 감채기금을 발생하는 비효율성에서 벗어나 재무부와 명목기금을 통한 완충장치를 갖출 수 있다. 상당 규모의 우발부채 포트폴리오를 가진 부처의 경우 위험 분담 조치와 더불어 수출금융청(UKEF, 부록 D 참조)이 제정한 것과 유사한 위험체계를 제정해야 한다. 위험체계와 위험 분담 조치는 각 부처의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위험의 규모와 특성,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제안 9:** 암묵적 위험에 대한 정부 내 인식을 개선하고, 위험 관리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위험관리체계 구축

2.34 재무부(HMT)의 우발부채 승인체계,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 그리고 본 보고서에 제시된 여타 제안은 정부가 명시적으로 부담하겠다고 동의한 우발부채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도 해소되지 않고 정부에 비용을 발생하는 암묵적 우발부채(Box 1.A 참조)가 존재한다. 몇몇 암묵적 우발부채는 명시적 채무로 전환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잘 관리될 수 있다.

2.35 정부는 OECD의 권고에 따라, 이미 수행된 예산책임청(OBR) 보고를 토대로 명시화 또는 납세자에게 아무런 잔여 위험도 전가하지 않을 조치로 더 잘 관리될 수 있는 암묵적 부채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식별해야 한다.

□ 제안 10: 현 우발부채 누적액 고려, 기존 위험 관리 범위 확장

2.36 위험분산 체계는 연금보호기금(PPF)(부록 I 참조)이나 영국 국민건강보험(NHS) 분쟁처리부(NHS Resolution, 부록 H 참조)와 같이 정부가 최종 보험자 역할을 하는 여러 분야에 존재한다. 유사한 보증/보험에 대한 위험을 집결하면 대규모 풀(pool)의 잠재적 노출을 공유하게 되므로 더 높은 위험도를 가진 개별 건의 손실이 주는 영향력을 줄일 수 있어 더 나은 보호층을 가지게 된다. 이로써 보험 비용이 절감되고 손실 예측의 안정성이 높아지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수혜자에게도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2.37 정부는 우발부채 누적액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 분산체계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또한 신규 우발부채 발행 시 위험분산 방식이 적절한지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학교를 위한 교육부의 위험분산체계(위험보호조치)를 들 수 있다. 본 체계는 시행 이후 약 7억파운드를 절감했으며 지역 학교도 보호 대상으로 확장될 계획인데 이로써 공공교육 분야에서 연간 7.5~12.5억파운드의 추가 절감을 예상한다.

2.38 또한 정부 전체에 우발부채 노출액 한도를 설정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우발부채는 재정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부 전체를 위한 위험체계를 설정하고 위험을 결합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중앙기관이 정부의 우발부채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후에는 이를 더 숙고해야 한다.

제3장 제안 개요

3.1 본 보고서에 기술된 제안사항(아래 표에 요약됨)은 우발부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원칙과 전략을 설명한다. 이 제안사항은 국제 모범사례에 대한 OECD와 IMF의 권고와 부합한다. 정부 주도로 채택될 제안사항들은 해당 부채와 관련된 위험을 줄여주고 공공 재정 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며 2020 예산서에 발표된 재정체계의 검토내용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3.A〉 제안사항의 개요

전문성 향상
제안 1: 보증과 보험의 가격 책정, 발급,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중앙기관 구축
위험의 수량화와 가격 책정에 필요한 전문성 집결
제안 2: 정부 보증료와 보험료에 대한 독립적 검증 도입-중앙기관 수행
보증 및 보험 관련 정확한 위험 산정과 적절한 요금 책정을 위해 중앙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검증
제안 3: 더욱 광범위한 재정위험 관리를 통해 우발부채 통합
정부의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제안 4: 우발부채 누적액(stock) 감독 개선
비수량화 우발부채 추정을 포함하여 기존 우발부채 누적액의 평가, 수량화, 가격 책정 수행
제안 5: 정부의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보고기능 개선
비수량화 우발부채 추정치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기적 보고
보상 개선
제안 6: 정부가 보험 보증을 제공할 때에 적절한 보상을 확보
정부는 보증과 보험에 수반되는 손실 충당을 위한 최소한의 수수료에 관한 국제 모범사례를 채택해야 함
위험감소 인센티브 설정
제안 7: 정부 부처가 유사한 위험 유형과 수준에 관련된 정책들에 편파적이지 않도록 예산 성과금 제도 개선
한 부처가 예상 손실 전부를 수혜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보증과 보험을 보조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보조금을 인식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
손실부담 명확화
제안 8: 재무부, 부처, 민간부문 간 손실 부담을 공식화하여 위험 부담 개선
정부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위험 부담 약정 및 위험 체계 수립

제안 9: 암묵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개선하고, 위험 관리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위험 관리 체계 구축

정부는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암묵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

제안 10: 해당되는 경우 기존 위험 관리 범위 확장

정부는 현 우발부채 누적액을 고려하고, 기존 분산제도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해야 함

출처: 재무부(HMT)

부록 A_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

배경

- A.1 정부는 회계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한다. 재무부(HMT)는 이 기준을 검토하며 공공부문에 채택하기 위해 회계연도마다 업데이트되는 정부재정보고지침(FReM: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Manual)에 수록한다.¹⁾
- A.2 회계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은 종종 요건 해석방식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지침 내 상이한 보고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재무부(HMT)는 회계관리관(AO: Accounting Officer)을 임명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A.3 국제회계기준(IFRS)을 개발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 발행 기관의 보험계약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중이다.

기존 회계 처리 방식

- A.4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을 구성하는 조치들은 여러 방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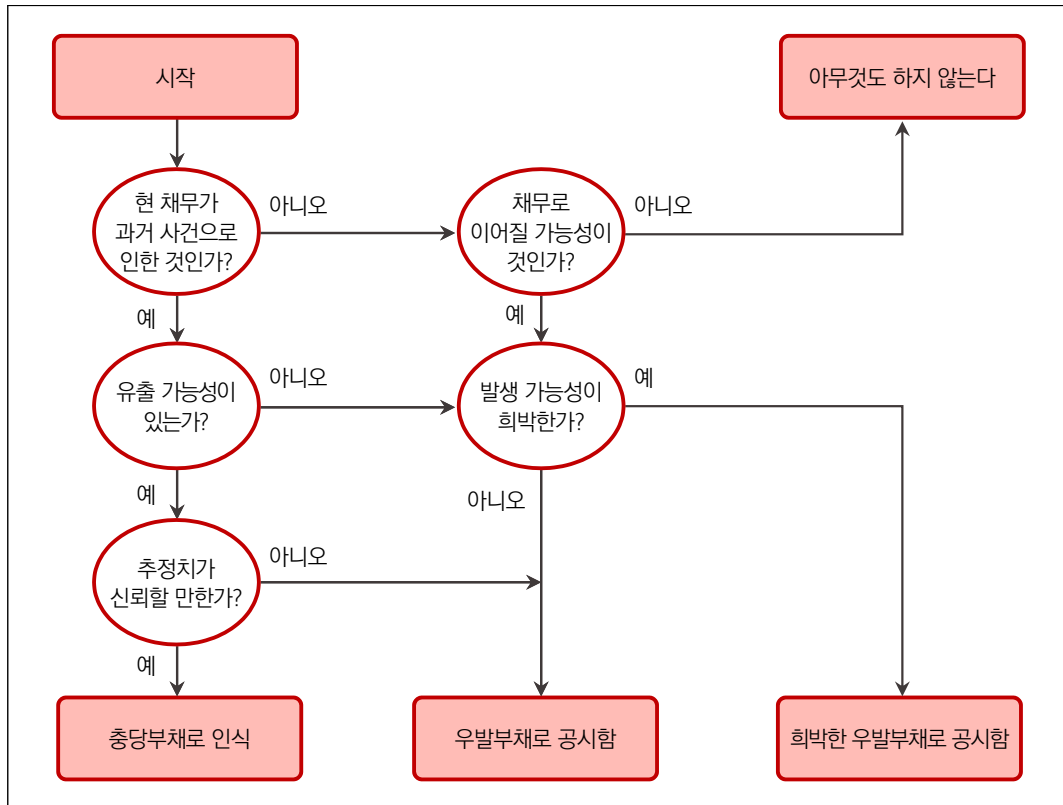
〈표 A.1〉 회계 처리 개요

처리 방식	관련 기준	실질적 의미
보험계약	IFRS 4 '보험계약'	회계 실체는 보험계약을 회계 처리할 때 최소한의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자는 보험부채가 해제, 취소, 또는 만료될 때까지 보험 부채를 재정상태표에 계상해야 한다. 회계 실체는 이러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한 IFRS 4를 다른 회계기준이나 맞춤형 처리 방식과 결합할 수 있다.
금융 상품	IFRS 9 '금융 상품'	지급보증은 금융 상품의 일종인 금융보증계약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3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다른 주체가 손실을 볼 경우 부처는 이를 보전할 것을 약속하는 재정보증을 발행한다. 이러한 부채는 보증기간 동안 예상되는 총 손실을 고려하여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보고 기간마다 재평가된다. 보험계약에 대한 상세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을 경우 많은 기관이 재정보증 및 여타 보험계약에 IFRS 9와 IFRS 4를 병행 적용해왔다.

1) '정부재정보고지침(FReM)', 재무부, 2014년 1월(2019년 12월 업데이트 포함)

처리 방식	관련 기준	실질적 의미
보증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회계 실체는 재화나 용역 제공 시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 사건에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고객의 위험을 재화/용역 제공자에게 전가하는 일종의 보험을 제공한다. 이는 해당 고객과의 이행 의무가 되어 해당 주체가 그 계약에서 수익을 인식할 때에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해당 주체에게 순 비용을 수반하는 불확실한 의무가 발생하면 IAS 37에 따라 충당부채나 우발부채도 발생할 수 있다.
충당부채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미래에 지출할 가능성이 높으나 발생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 회계 실체는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려면 그 부채는 반드시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이상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회계 실체는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그 액수를 추정해야 한다. 회계 실체는 충당부채를 재정상태표에 계상한다. [그림 A.1]은 충당채무, 우발부채 및 희박한 우발부채 간 차이를 설명한다.
우발부채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으나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채무를 우발부채로 인식한다.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채무에도 이 방식이 이용된다. 우발부채는 연간 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주석으로 공시되지만 재정상태표에는 인식되지 않는다. 가능한 경우 주석에 우발부채 추정치가 포함된다. [그림 A.1]은 충당채무, 우발부채 및 희박한 우발부채 간 차이를 설명한다.
희박한 우발부채	예산집행기준	공공부문에는 희박한 우발부채 관련한 특별한 범주를 둔다. 정부 재정의 높은 공익성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의무도 희박한 우발부채로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비용 발생 확률이 10% 미만이면 희박한 우발부채로 간주된다. 희박한 우발부채는 연례 보고서에 공시되지만 재정상태표에는 계상되지 않는다. 우발부채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가용성에 따라 희박한 우발부채의 금액을 공시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A.1]은 충당채무, 우발부채 및 희박한 우발부채 간 차이를 설명한다.

[그림 A.1]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희박한 우발부채의 구분



출처: 정부재정보고지침(FReM)

예상되는 보험회계기준상의 변경

- A.5 현재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IFRS 4는 보험계약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제시하고 특정 최소 공시 요건이 충족되도록 고안된 한시적 기준이다.
- A.6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상세한 회계 처리를 규정하는 대체 표준인 IFRS 17 ‘보험계약’을 발표했다.
- A.7 IFRS 17을 2022/23 회계연도부터 공공부문에 적용할 계획이다. 재무부(HMT)는 해당 기준을 검토 및 협의하고 필요한 조정을 수행한다. 이에 대한 지침은 2022-23 정부재정 보고지침(FReM) 및 IFRS 17전용 적용지침에 공개된다.
- A.8 정부 기관은 보험계약 및 여타 보험 조치에 관한 각각의 회계 처리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보험 위험을 전가하는 몇몇 계약이 아직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떤 계약은 현재

상이한 재무 보고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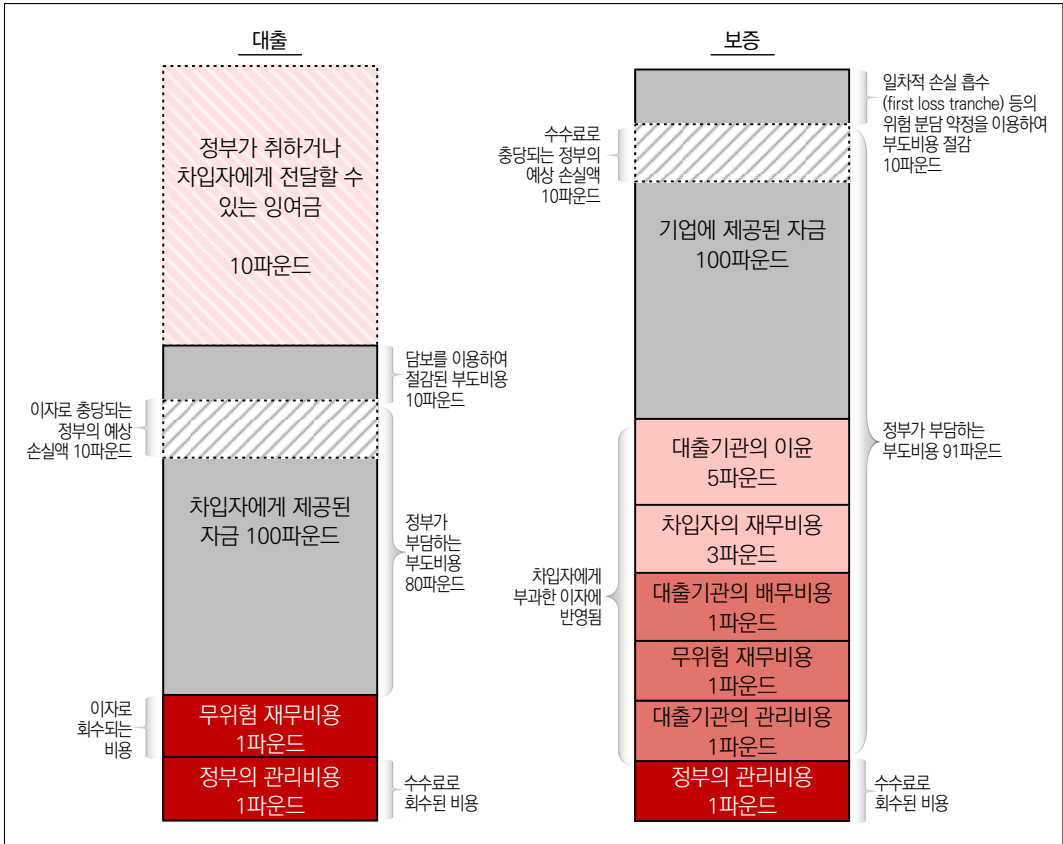
A.9 IFRS 17이 발효되면 보험 위험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부분의 조치에 적용된다. 보험계약은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구두 또는 과거의 실무 관행을 통한 의제 의무로도 성립할 수 있다.

A.10 IFRS 17에 따라 보험계약을 평가하려면 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미래 현금흐름을 식별하고 이것을 재무 및 보험 위험에 맞게 조정하며 현재가치로 할인해야 한다. 이것은 재정상태표상에서 보험자산이나 보험부채로 인식되며 보고기간마다 재평가된다.

부록 B_대출과 보증의 상대 비용

- B.1 IMF가 인정했듯이 직접 대출이 보증보다 더 비용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대출을 제공할 때 정부는 대출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리비(행정 수수료로 회수 가능)와 재무비용(차입에 대한 무위험 수익률과 동일함)에 직면한다.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정부는 대출액을 잃게 된다. 담보를 이용하면 부도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가 회수 기준으로 대출 가격을 책정하면 정부는 차입자의 부도 가능성을 반영하는 이자를 부과하여 예상 손실을 충당한다.
- B.2 정부는 보증 제공 시에도 대출과 동일한 관리비용(행정 수수료로 회수 가능)이 소요된다. 보증의 혜택을 받는 대출기관은 자신의 관리비용과 재무비용(정부의 재무비용보다는 높음)을 부담하며, 해당 두 비용은 대출자에게 반영된다. 이자에는 차입자의 위험도에 따른 할증료와 대출기관의 이윤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대출기관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보증을 요구한다. 보증 혜택이 없는 한 대출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른 정부의 비용이 증가한다. 부도비용은 일차적 손실 흡수(first loss tranche)와 같은 위험 분담 약정을 이용하여 줄일 수 있으며 보증 수수료는 정부가 입을 예상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 B.3 [그림 B.1]은 차입자의 부도 확률이 10%이고 무위험 수익률을 1%로 가정하여 100파운드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된 가상 대출/보증의 상대 비용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대출기관은 2%의 이자로 차입할 수 있고 정부는 원가회수주의(cost-recovery basis)로 해당 상품의 가격을 책정한다.

[그림 B.1] 대출/보증의 상대 비용



주: 대출/보증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은 본 그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처: 재무부(HMT)

B.4 위 예시에서, 정부가 원가회수주의로 상품 가격을 책정할 경우 정책적 균형은 보증을 통해 추가된 100파운드의 재정적 여유(추가적 투자 기회)와 차입자 부도 시 지급해야 하는 높은 위험(11파운드) 사이에 있다. 대출의 경우 민간부문의 대출과 동일하게 이율을 높여 차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같게 하거나 혹은 이율을 낮춰 차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옵션이 있다. 만약 단일 차입자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 목표인 경우 대출을 선호한다.

B.5 여러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 목표인 시나리오에서 정부가 각 기업의 대출 신청을 처리해야 하므로 정부의 여신 관리비용은 차입자 수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그러나 단일 대출기관에게 단일 보증을 제공할 경우 다수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보장할 수 있어 정부의 관리비가 대폭 줄어든다.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보증이 더 효율적이다.

B.6 위에서 설명한 비용 외에도, 대출과 보증은 부도 시 손실 회수 능력이나 위험 특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계약을 포괄하기도 한다. 대출이나 보증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 약정은 맥락에 따라 다르며 그 약정이 대출/보증의 상대 비용에 미치는 정도는 건별 추가 분석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부록 C_우발부채 관리의 국제 모범사례

C.1 IMF와 OECD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서 우발부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인정해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포함하여 우발부채 관리에 관해 모범사례를 권장한 바 있다.¹⁾

- 최소한 예상 손실액을 충당할 수 있는 위험 기반 수수료를 청구하고 위험 완화를 위해 위험 분담 약정을 이용한다.
- 보증, 대출 및 보조금 간의 중립성을 제고한다. IMF는 우발부채에 대해 “처음부터 현금 흐름을 요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예산 제약을 회피하고자 우발부채를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직접 지출보다 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²⁾ 정부는 적절한 조사나 위험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우발부채를 ‘무비용’이라 인식할 수도 있다. 중립성 제고를 위해 OECD와 IMF는 우발부채 발행 시 잠재 비용을 고시하고 예산을 책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중립성은 회계 관점에서 더 선호하는 수치를 찾기보다는 조직에 가장 효율적인 도구를 선택하게 한다.
- 명목기금(notional fund)으로 미래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한다. 우발부채의 규모가 크다면 우발부채 발행 시 자원을 따로 비축하고 수수료를 축적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추적되는 자금으로 재무부로 반환되는 명목기금은 관리 용이성으로 인해 선호된다.
- 노출 한도 설정. 신규 보증은 노출 한도를 규정하는 위험체제로 규제해야 한다. 또한 보증을 고려할 수 있는 시기, 수수료 금액 및 위험 완화조치에 대한 지침도 제공해야 한다.
- 우발부채를 발행하기 전 비용/위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우발부채 누적액을 모니터링 한다. IMF는 정부가 우발부채 누적액을 평가하고 관련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이해하며 발행 시 예상되는 비용을 인식하는 예산 관행을 채택하도록 제도적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 ‘정부보증 관리 강화방안’, IMF, 2017년 10월, ‘우발부채를 위한 예산 편성’, OECD, 2013년 6월, ‘우발부채 관리에서 공공채무 관리자의 역할’, OECD, 2017년 2월

2) ‘정부보증 관리 강화방안’, IMF, 2017년 10월

- C.2 OECD도 정부가 암묵적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약속을 사전에 하지 않는 이상 암묵적 부채는 명시적 부채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장한 바 있다.³⁾
- C.3 이러한 원칙과 권고 사항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두 가지 국제 모범사례는 스웨덴(Box C.1 참조)과 네덜란드(Box C.2 참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우발부채를 위한 예산 편성', OECD, 2013년 6월

Box C.1: 스웨덴

스웨덴 국채관리소(SNDO)는 1960년대부터 보증을 담당해왔으며 스웨덴 의회는 1990년 중반에 공식적인 체계를 채택했다. 국채관리소(SNDO)는 스웨덴 정부가 제공하는 대출과 보증 전체를 검토하는데, 이 둘 모두 유사한 분석을 요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체계는 예산 관점에서 정부가 보조금, 대출 및 보증 간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그리고 재무제표 위험에 대한 책임감과 관리 역량을 제고하도록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한다.

- 원가 회수: 정부는 보증/대출 관리비와 예상 손실(예상 원가)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수령자에게 예상 원가보다 낮은 수수료를 청구할 경우 보조금은 당해 지출에서 충당되고 여타 지출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 장기적 측면으로 본 위험중립: 정부의 재정상태표 규모에 비해 대출/보증 규모가 큰 경우 정부는 원가 회수를 초과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 명목계정(notional accounts): 수수료는 중앙정부의 현금 흐름에 포함되며 채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보증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은 해당 채무를 위해 설정된 담보자 금에 누적되지는 않지만 각 보증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명목계정에서 인식한다.

국채관리소(SNDO)는 대출/보증의 발행, 모니터링 및 보고에 있어서 중앙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학자금 대출, 국제개발 및 주택 공급을 포함한 특정 분야에서 대출과 보증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4개의 다른 기관이 존재한다. 이 4개 기관 이외의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국채관리소(SNDO)가 위험을 평가하고 수수료를 책정한다. 관련 부처는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으나 이 보조금은 부처 예산에서 조달해야 한다. 해당 모델은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부처만이 위험을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고 명확한 책임을 지게됨을 의미한다. 국채관리소(SNDO)는 대출/보증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를 연례적으로 발간하여 이 대출/보증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위험 관점에서 신규 보증의 발행과 기존 보증의 관리가 더 엄격해졌다. 스웨덴 정부가 비록 몇몇 개별 보증에서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있으나 연 평균 20억스웨덴크로나(SEK)(약 1.7억파운드)의 보증 수수료를 벌고 있다. 이로써 기존 손실과 미래 손실을 충당할 때 더 나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Box C.2: 네덜란드

금융위기 이후 네덜란드 정부가 발행한 우발부채와 대출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다음을 포함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했다.

- 정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불가(no, unless)’ 정책을 도입했다. 즉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우발부채를 승인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모든 신규 보증제도와 변경된 기존 보증제도는 5년마다 표준화된 재평가를 거친다.
- 정부의 우발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안을 하는 부처는 매년 제한된 승인 기간 내에 점검표를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크리스트는 대체안, 위험 수준,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 및 관련 한도를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한다. 많은 경우 부처는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기 전 우발부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며, 그 외의 경우에는 체크리스트가 한갓값 역할을 한다.
- 각 부처에 대한 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재무부에 직접 지급되고, 경상수지에 기록되며, 해당 우발부채로 인해 발생한 손실 충당에만 활용한다. 손실이 프리미엄보다 높으면 그 손실뿐 아니라 모든 미래 손실까지 해당 부처가 책임진다.
- 심각하고 복잡한 위험의 경우 전문가의 2차 의견으로 프리미엄 수준을 결정한다.
- 부처는 수혜자가 지불하는 프리미엄을 감액하여 우발부채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은 부처 예산으로 충당되어야 하며, 재무부와 장관협의회는 그러한 제안에 동의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요구한다.
- 신규 우발부채를 발행하려는 부처는 필요 시 여타 우발부채 노출액을 줄이면서 자신의 여유자금을 이용해야 한다.
- 우발부채는 내각의 승인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무부를 거쳐 내각의 승인을 얻은 후 의회와 공유된 후에야 온라인으로 고시되며, 이러한 절차는 투명성을 제고한다.

새로운 체계의 효과는 입증되었다. 우발부채는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 부분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발부채의 규모가 감소했다. 2008년 640억유로에서 2012년 말에 2,580억 유로로 정점을 찍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거의 모든 해에 하향세를 보였고 2018년 말에는 1,770억유로를 기록했다. 해당 체계로 인해 위기와 관련 없는 국내 우발부채는 안정세를 이어갔고 2019년에는 위기 이전 수준인 370억유로로 감소했다.

부록 D_사례 연구: 영국 수출금융청(UK Export Finance)

- D.1 영국 수출금융청(UKEF)이 적용한 방식의 성공은 뛰어난 위험 모델링과 가격 책정 전문성, 투명한 체계, 사전에 정의된 노출 규모와 한도에 기인한다.
- D.2 영국 수출금융청(UKEF)은 영국의 수출입금융기구이며 장관급 정부 부처다. 정부의 강력한 재정상태표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위험성향에 존재하는 격차를 좁히기 위해 수출업체에 보험, 보증 및 직접 여신을 제공한다. 수출금융청(UKEF)은 수출을 지원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해당 청의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재무부(HMT)의 동의 하에 운영된다. 수출금융청(UKEF)은 납세자에게 순 비용을 부과하지 않은 채 위험 프리미엄을 청구함으로써 청구액 손실과 운영비용을 충당한다. 재무부(HMT)가 정한 여타 재무적 요소에는 노출 한도와 포트폴리오 위험성향 한도가 포함된다.
- D.3 수출금융청(UKEF)의 최대 노출 한도는 500억파운드이며 이 중 300억파운드가 소진되었다. 미래 손실 평가에 기초한 위험성향 한도는 50억파운드다. 이러한 위험성향은 손실이 한도를 초과할 확률이 0.9%에 불과하도록 조정된다. 수출금융청(UKEF)은 60개 이상의 통화로 자금 조달을 보증할 수 있으며 각 국가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국가별 최대 한도를 50억파운드로 설정했다. 수출금융청(UKEF)은 수출 금융/보험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100개 이상의 은행, 브로커 및 기타 금융기관과 협력한다.
- D.4 수출금융청(UKEF)은 다음을 포함하는 다양한 보증을 제공한다.
- 무역 금융 지원(채권지원제도와 수출운전자금제도) - 수출기업이 해외 구매자에게 계약이행 보증 요청을 받거나 주문 이행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을 요청할 경우 수출금융청(UKEF)은 수출기업의 은행에 최고 80%까지 보증함으로써 필요한 채권/대출이 이루어지게 한다.
 - 수출보험 정책 - 민간부문이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출금융청(UKEF)은 계약가액의 최대 95%까지 신용보험을 제공하여 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미지급 또는 정치적 위험에서 수출기업을 보호한다.
 - 구매자/공급자를 위한 여신 - 수출금융청(UKEF)은 영국 상품/용역을 구매하는 해외 구매자에게 은행이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에게 최대 85%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해당 대출은 단계별로 실행할 수 있어 수출기업은 계약에 따라 자금을 받고 구매자는 장기간(통상 2~10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부록 E_사례 연구: 영국 국제개발부(DFID)

- E.1 우발부채를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하면 비용 절감은 물론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중앙기관의 도움은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험 관리 관행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지원을 제공하므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E.2 재난관리센터(CDP: Centre for Disaster Protection)는 영국 정부(국제개발부 주도), 세계은행,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으로 (1)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이해와 관리를 돕고, (2) 효과적인 방식에 관한 부족한 증거 기반을 개선하고, (3) 관련 인식 제고 및 정책 논의를 지원하고자 설립되었다.
- E.3 이 센터의 접근방식은 ‘재난 완화?(Dull Disasters?)’에 소개된 권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신속히 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1) 재난 복구를 위해 사전에 합의되고 조정된 믿을 만한 정부 주도 계획, (2) 증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 (3) 합의된 자금조달을 요구한다.¹⁾
- E.4 케냐의 기근안전망 프로그램(HSNP)은 재난관리센터(CDP)와 국제개발부(DFID)의 지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위험 관리 프로그램의 예이다. 기근안전망 프로그램(HSNP)은 재난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제고한다. 기근안전망 프로그램(HSNP) 하에 무조건 부로 케냐 북부의 만성적 빈곤층에 정기적으로 현금이 이체되어 충격에 대응한 사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규모는 사전 합의된 지침(예, 식생 상태지수로 판단되는 가뭄)과 관측(엘니뇨)에 따라 확장된다.
- E.5 기근안전망 프로그램(HSNP) 하에 국제개발부(DFID)는 매년 9백만에서 6천만달러 범위로 확장되는 자금으로 다양한 재정보증을 제공한다. 국제개발부(DFID)는 세계은행을 통해 채납 시 연평균 손실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제공한다. 케냐 정부는 잔여 위험을 재정상 대표에 계상하지만 다수의 방법으로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 E.6 기근안전망 프로그램(HSNP)은 케냐 정부의 가뭄 위험 관리능력을 크게 제고했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신속히 분배하는 조기 조치로 가뭄의 영향을 축소했다. 또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더 투명하고 규칙에 근거하며 감사가 가능한 대응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1) ‘Dull Disasters?’, Daniel J Clarke와 Stefan Dercon, 2016년 7월

부록 F_사례 연구: 인프라사업관리청 (Infrastructure Projects Authority, “IPA”) - 영국 보증계획(UK Guarantees Scheme)

- F.1 예상된 손실 및 예상치 못한 손실 비율을 담보하는 보험에 적절한 보험료를 부과하면 위험 관리를 장려할 수 있으며 위험이 현실화할 때 정부는 더 나은 위치에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
- F.2 영국 보증계획(UKGS)은 불리한 신용 조건에도 인프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해당 제도는 위험성향이 낮은 투자자에게 금융을 조달하거나 내부 전문가에게 직접 복잡한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을 제공한다.
- F.3 인프라사업관리청(IPA)의 전문가팀(team of commercial specialists)이 재무부(HMT)를 대신하여 영국 보증계획(UKGS)을 관리한다. 해당 팀은 초기 위험 평가와 보증 협상을 담당하며 지속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보증 포트폴리오를 감독한다.
- F.4 영국 보증계획(UKGS)은 차입자가 대주(은행이나 투자자)에게 지불해야 할 사회기반시설 채무(원금과 이자)를 보증한다. 재무부(HMT)는 무조건적이고 취소 불가한 보증(즉 차입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상환)을 발행한다. 이를 통해 대주의 관점에서 차입자의 신용등급이 정부의 신용등급으로 대체된다.
- F.5 모든 보증은 영리원칙에 따라 시행(국고 보조금이 아님)되며 영국 보증계획(UKGS)은 시장가격(market-oriented fee)에 따라 각 차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수수료는 프로젝트 위험 및 유사 위험에 적용되는 시가 평가를 거쳐 재무부(HMT)를 대신하여 인프라사업관리청(IPA)이 정한다. 영국 보증계획(UKGS)과 관련된 위험은 재무부(HMT)가 궁극적으로 부담한다. 재무부(HMT)는 보증 수수료를 수입으로 얻고 보증과 관련된 청구 위험을 부담한다.
- F.6 수수료 수입이 예상 손실과 제도 운영비보다 많고, 재무부(HMT)가 영국 보증계획(UKGS) 관련 손실을 회수할 때 선순위 대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가지므로 제도 전체 차원에서 납세자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현재까지 영국 보증계획(UKGS)은 재무부(HMT)

가 보증한 9건의 인프라 채권과 대출을 보증(총 18억파운드에 달함)하여 40억파운드 이상의 투자를 지원했다. 지금까지 받은 수수료는 9천만파운드가 넘으며 영국 보증계획(UKGS)의 수명주기 동안 재무부(HMT)는 총 2.2억파운드 이상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F.7 영국 보증계획(UKGS)은 매년 다음과 같은 내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1) 당해 기간 중 체결한 보증계약, (2) 보증 발행과 관련된 재무부(HMT)의 비용, (3) 당해 기간 말 기준 실제/우발부채의 내역, (4) 영국 보증계획(UKGS)과 관련하여 재무부(HMT)가 수령한 수수료와 기타 수입금

부록 G_사례 연구: 영국 비즈니스 은행(BBB)

- 기업금융보증(EFG)

- G.1 부처와 기관이 보증 보조금(수수료 수입과 예상 원가의 차액)에 대한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위험이 현실화될 때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더 용이해진다.
- G.2 Box 2.A에 설명한 대로, 영국 비즈니스 은행(BBB)은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제도를 운용한다. 주요 제도로 기업금융보증(EFG: Enterprise Finance Guarantee)이 있다. 현재 기업금융보증(EFG)의 총 노출액은 5.88억파운드이며, 대주의 담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기업금융보증(EFG)은 각 대출액의 75%까지 보증하며 연간 손실 한도는 전체 기업금융보증(EFG) 포트폴리오의 15%로 정해져 있다.
- G.3 기업금융보증(EFG)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40개의 공인 대주 중 하나에게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대주가 기업금융보증(EFG)을 이용하지 않고도 일반적인 상업 조건으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 하지만 신청 기업의 대출신청서가 건전하더라도 담보가 적절치 않을 경우 대주는 기업금융보증(EFG)을 받을 수 있다. 기업금융보증(EFG)을 받은 기업은 제도 비용에 대한 기여금 조로 정부에 연간 2%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 제도는 보조금 성격이므로 수수료 수입과 예상 손실과의 차액에 대해 예산이 책정된다.

부록 H_사례 연구: 영국 국민건강보험(NHS) 분쟁처리부

- H.1 위험 기반 수수료는 수혜자의 위험 감소 행동을 장려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 H.2 영국 국민건강보험(NHS)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내재한 청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차 및 3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기되는 의료과실 청구를 관리하기 위해 1995년 국민건강보험(NHS) 소송국(현재 국민건강보험(NHS) 분쟁처리국으로 운영됨)이 구성되었다. 과거에는 개별 국민건강보험(NHS) 조직이 상이한 기준에 따라 관련 청구를 관리했다. 2019년 4월 1일부터 일반의(또는 1차 의료기관, GPs)를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보상을 국민건강보험(NHS) 분쟁처리부가 관리하게 되었다.
- H.3 2006/07년과 2017/18년 사이 의료과실 청구 보상액은 4억에서 22억파운드로 4배 증가했고, 보고된 청구 건수는 5,400건에서 10,600건으로 2배로 늘었다. 2017/18 국민건강보험(NHS) 분쟁처리부 회계 기준, 총 배상책임액은 770억파운드였다. 재정상태표 일까지 발생할 미래 청구(아직 보고되지 않은 청구)로 인한 배상책임액은 정부보험계리부(GAD)가 보험 수리적 방식으로 예측한다. 이때 과거 경험의 분석 및 청구 건수와 평균 비용 같은 주요 가정을 이용한 미래 추세를 이용한다.
- H.4 국민건강보험(NHS) 분쟁처리부는 의료과오기금(CNST)에서 의료과실 청구를 관리한다. 해당 제도는 제도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NHS) 제공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위험을 분산한다. 즉 각 가입자(국민건강보험(NHS)에 속하는 의료기관)의 상대적 위험도에 따라 비용을 공정하게 분산하도록 설계된 노출 계수와 경험을 토대로 연간 청구액 지급비용(보험 수리적 예측에 기반함)이 가입자 전체에게 분산되며 동시에 고액 보상금에 노출되는 개별 가입자를 보호한다.
- H.5 가장 높은 의료과실 청구액은 청구인에게 평생 지급되는 출산 관련 청구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에 국민건강보험 규정(NHSR)은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NHS) 병원을 위해 의료과오기금(CNST) 분담금을 10% 증액했다. 환자 안전을 개선하는 10가지 특정 조치를 완료한 국민건강보험(NHS) 병원은 10% 증가액을 반환받는다. 해당 제도는 성공적이었다. 국민건강보험(NHS) 병원의 57%가 10가지 조치 모두를 실행했으며, 이 제도는 두 번째 해에도 진행되고 있다.

부록 I_사례 연구: 연금보호기금(PPF)

- I.1 부채 관리를 위해 감채기금이 마련된 경우 가입 규칙과 운영 독립성을 명확히 정의하고, 위험을 완전히 보장해야 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잔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 I.2 연금제도 가입자는 후원자가 파산하여 연금제도의 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연금을 잃을 위험에 직면해 왔다. 확정급여 연금제도가 약속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금제도 가입자의 위험을 관리하고자 2004년 연금보호기금(PPF)이 설립되었다. 연금제도를 후원하는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금보호기금(PPF) 수준의 보장을 충족할 만한 재원이 부족해지면 연금보호기금(PPF)이 가입자를 보상해준다. 연금보호기금(PPF)의 목표는 연금제도 가입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완전한 보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 I.3 연금보호기금(PPF)은 다음 네 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1) 보험료와 유사한 위험 기반의 의무 부과금, (2) 연금보호기금(PPF)으로 이전된 제도의 자산 인수, (3) 파산 기업에서 자금 회수, (4) 관리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 연금보호기금(PPF) 자산이 채무를 충당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한 경우 연금보호기금(PPF)은 독립적으로 위험 기반 부과금을 증액하고,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고위험 투자 대상에 투자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연금 지급액을 줄일 권한이 있다.
- I.4 2019년 3월 말, 연금보호기금(PPF)은 240억파운드의 미래 보상액을 충당하기 위해 상기 방식으로 320억파운드의 자산을 축적했다. 연금보호기금(PPF)의 현 자금은 충분하지만 타 확정급여형 연금(총 부족액은 440억파운드이며 변동성이 높음) 가입자도 계속해서 보호한다.¹⁾ 지난 3년간 연금보호기금(PPF)으로 이전된 연금제도 자산은 연금보호기금(PPF)이 제공하는 지급액보다 30억파운드 적었다.

1) 2019년 3월 현재 기준. 연금보호기금(PPF) 7800 Index, 2019년 4월 업데이트

부록 J_사례 연구: Pool Re(테러보험 전용 상호재보험사, Pool Reinsurance Company Limited)

- J.1 비상사태 외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충당할 때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극대화하면 위험에 대한 정부의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J.2 1990년에 발생한 아일랜드공화국군(PIRA)의 테러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때문에 보험업계는 테러 관련 피해 보상을 철회했다. 테러 공격은 상당히 모델링하기 어려웠고 민간 보험업계가 감당하기에는 대규모 공격의 잠재적 비용이 막대했다. 이는 테러 위험으로 인해 정부에 무제한의 암묵적 우발부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고자 보험계와 재무부(HMT)가 협력하여 1993년 설립한 조직이 Pool Re이다.
- J.3 Pool Re는 구성원 소유의 재보험사이며 정부 보증으로 지원된다. Pool Re가 사고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면 재무부(HMT)가 미충당 비용에 대해 대출을 제공한다. 재앙적 사고 발생 시 민간부문의 꼬리 위험(tail-end risk)을 정부가 감수해 민간 보험사는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의 대가로 재무부(HMT)는 Pool Re 보험료 수입의 50%와 배당수입의 25%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이를 통해 납세자에게 연간 2억에서 3억파운드의 수익이 창출된다. 해당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최대 잠재적 부채를 수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2014년 정부보험계리부(GAD)는 현실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기 위해 200년 재현 주기를 기준으로 신뢰할 만한 최대 잠재적 노출을 예측했다. 이러한 예측치는 2014년에 재협상된 보증 가격에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유효성 검토를 거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J.4 Pool Re 모델은 보증이 실제로 작동하기 전 여러 방어층을 생성함으로써 민간 보험사의 적극적 시장 진입을 성공적으로 도왔다. 이러한 성공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Pool Re의 재보험에 가입한 다수의 민간 재보험사가 시장에 잔류, (2) Pool Re가 초과 손해액 재보험을 타 재보험사에서 구입, (3) Pool Re에 지급된 보험료로 기금 축적. 이러한 방어층은 세금으로 사건 비용을 충당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100억파운드의 완충재 역할을 했다.

영국 재무부 연락처

해당 문서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www.gov.uk

해당 문서를 다른 포맷으로 요청하거나,

영국 재무부에 대해 일반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대응팀(Correspondence Team)

HM Treasury

1 Horse Guards Road

London

SW1A 2HQ

전화번호: 020 7270 5000

이메일: public.enquiries@hmtreasury.gov.uk

2020 영국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 공공부문 우발부채 관리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재진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세일포커스(주)

I S B N 979-11-6655-131-4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2020 영국 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 공공부문 우발부채 관리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9 791166 551314
ISBN 979-11-6655-131-4